월요광장

아이 키울 때도 '적절한 시기'가 있다

김경란
광주여대 유아교육과 교수

한, 두 자녀를 키우는 요즘 부모님들은 자녀를 잘 키우고 싶다는 기대로 옆집 아이가 한다면 불안한 마음에 자녀의 발달과 상관없이 다양한 사교육을 시키고 있다. 필자가 만났던 성호는 유치원 종일반에서 긴 시간을 지내고 귀가한 이후 2~3개의 학습지를 하고, 아이들이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일상생활 그림책보다는 많은 지식이 담긴 책을 보는 5살 된 남자아이였다.

그래서인지 짠물에 사는 해수어와 맑은 물에 사는 담수어로 물고기를 분류할 수 있을 만큼 물고기의 특성을 잘 알고, 다양한 사물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었다.

어느 날, 담임선생님은 교실을 비울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학급에서 가장 아는 것이 많다고 생각되는 성호에게 "우리 교실 앞에 있는 난초반 교실에 가서 똑똑 문을 두드리고, 난초반 선생님께 이것 좀 전해드리고 올래"라고 말하며 메모지를 건네주었다. 그러자 성호는 "난 못해요! 난초반 교실에는 가본 적이 없어요."라고 울먹였다.

그런데 이때 늘 바깥놀이를 신나게 하는 민수가 "선생님! 제가 갖다 드릴게요. 우리 교실 앞에 있는 난초반에 갔다 오면 되는 거잖아요!"라고 별것 아니라는 듯이 말하고는 금방 심부름을 다녀왔다. 담임선생님은 많은 지식을 알고 있는 성호가 선생님의 심부름을 잘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가 당황했다고 말했다.

아이들을 교육한 경력이 조금만 더 있는 선생님이라면 학습지와 지식이 담긴 책을 많이 보아서 지적인 능력이 있는 성호보다는 바깥놀이터에서 신나게 뛰어놀면서 늘 자신감 있는 민수가 새로운 상황에서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는 것쯤은 당연하게 알고 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선행학습을 하는 중에 자신의 발달수준보다 어렵기 때문에 겨우겨우 주어진 지식을 알아가면서 '겨우 해냈다!'는 안도감보다는 '이번에는 틀리면 어떻게 하지?'하는 불안감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점차 자신감을 잃어가기 때문이다.

아이의 학년보다 높은 학년의 교과서를 이용하는 선행 학습은 여러 번 반복하여도 아이의 두뇌가 적합하게 발달되어 있지 않아 내용을 이해하기에 많이 힘들다. 설사 풀어 본 문제는 알더라도 문제유형이 조금만 달라지면 아이는 당황하여 불안해진다. 이처럼 아이가 지식을 습득하는 능력은 뇌의 성장 속도에 맞춰 천천히 발달한다.

또한 사춘기까지는 아이가 세상을 살아나가기 위해 타인과 잘 지낼 수 있는 능력과 품성을 길러주어 사회에 적응하는 능력을 키워주어야 한다. 또한 자신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힘들어도 참을 수 있는 조절력을 키워주어야 한다. 이러한 능력은 자녀의 사춘기까지만 발달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동물학자 로렌즈(Lorenz)는 알에서 깨어나는 새끼오리가 부화한 뒤 하루 동안에만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어미오리로 알고 따라다니는 것을 발견했다. 새끼오리에게 어미오리 대신 자신을 보여주었더니 새끼오리들이 로렌즈를 어미오리로 알고 쫓아다녔다.

그렇지만 새끼오리가 알에서 깨어난 지 하루 이상 시간이 지나면 움직이는 대상을 보여주어도 따라다니는 행동을 하지 못했다. 새끼오리가 어미오리 곁에서 있을 때 살아남을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갓 태어난 새끼오리는 어미오리를 보고 따라다닐 수 있는 능력을 하루 동안에만 가능하도록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것이다.

새끼오리가 어미오리를 따라다닐 수 있는 능력이 발달되는 시간이 하루로 정해진 것처럼 사람에게도 일정한 '때'에만 배울 수 있는 '적절한 시기'가 있다.

인간의 성품과 충동을 조절하는 뇌가 발달하는 시기는 10~12세까지가 '적절한 때'이다. 이렇게 아이들에게 다양한 상황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다른 사람의 기분을 헤아려보고 자신의 감정을 조절해보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녀의 학습은 자녀의 발달수준에 적절하게 맞추어서 할 수 있다면 자녀는 자신감을 찾을 것이다.

또한 타인의 감정을 헤아리고 자신의 정서를 조절할 수 있는 뇌의 발달은 사춘기까지만 이루어진다는 '때'가 정해져 있으므로 자녀의 뇌 안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이해하고 자녀에게 성공의 경험을 허락해주어야 한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듯이 자녀 양육에도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않는다면 자녀는 자신감을 찾고 타인과 함께 즐겁고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많은 일들을 성취하는 인생을 살 것이다.

법조칼럼

판사는 어떤 사람들인가

장진영
광주지법 민사11부 판사

저는 연수원을 수료한 뒤 법무관으로 3년간 군복무를 했고, 판사가 된 지는 10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제 이름 뒤에 '판사'가 붙을 때에는 조금 낯설기도 합니다.

저는 최근까지 법원 밖에서 법조인으로 살면서 판사에 대해 현실과는 다른 이미지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꽤 만났던 것 같습니다. 현실과 다른 판사의 이미지들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판사는 재판이 있는 날만 일을 한다.

저의 주된 업무는 사건기록 검토, 관련 판례 연구, 합의, 판결문 작성 등이고, 저를 비롯한 많은 판사들이 야근은 물론이고 주말에도 일을 해야만 할 정도로 일이 많습니다. 심지어 부장판사로 승진하면 일이 2배 이상 많아집니다. 아마도 판사가 일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판사가 직원들이 작성한 판결문에 도장만 찍는다고 오해해서 그렇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둘째, 판사들은 월급으로 생활하지 않는다.

외부에서 현금이나 상품권 등을 많이 받을 것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위와 같이 생각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단언컨대, 국가가 판사들에게 봉급을 주지 않는다면 지금의 판사들은 아무도 남아 있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 판사들에게는 관용차와 개인 사무실이 제공된다.

실제로 제가 판사가 된 작년 4월경에 제 할머니께서 노인정의 어떤 분으로부터 "손자 출근할 때 누가 데리러 오느냐?"라는 질문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판사에게 관용차가 제공되는 경우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의 법관과 지방법원 부장판사 중 지원장(기관장)으로 일하는 경우뿐입니다. 또한, 사무실도 보통의 경우 2~3명이 함께 사용하고, 부장판사 이상의 법관들만 혼자서 사무실을 사용합니다. 위와 같은 오해는 아마도 판사를 최고위(?) 공무원으로 생각하는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제가 판사가 된 후 새롭게 알게 된 것들을 간추려 보겠습니다.

첫째, 인간관계가 협소해 진다.

판사는 자신이 담당하는 사건과 관련된 사람을 사적으로 만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판사도 사회적 인간이기에 친구들, 친지들이 있고, 모임도 있으며, 그 중 누군가 사건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사들은 친목 모임의 횟수를 줄이거나 확대시키지 않으려는 노력을 은연중에 하게 됩니다. 이러한 환경 때문에 판사들은 동료 판사들과 더욱 친해지는 경향이 나타납니다.('판사들은 판사들끼리만 논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인 것 같습니다)

둘째, 작은 것 하나에도 민감해 진다.

이것은 제가 직접 느낀 것은 아니고, 어떤 부장판사님의 말씀을 빌린 것입니다. 판사들은 일할 때 전문화된 직원들의 도움을 받기는 하지만 자신의 이름이 적힌 판결문에 대한 모든 책임은 오롯이 그 판사에게 있기 때문에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 직접 체크해야 하고,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일하다 보면 성격까지도 변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경력이 긴 판사들 중에는 동안(童顔)이 없다.

업무량도 많고, 난이도도 높아서 업무에 쏟아야 하는 에너지가 어떤 직업과 견주더라도 적지 않기 때문에 경력이 긴 판사님들 중에서 나이에 비해 동안인 사람을 찾기 어렵습니다.

넷째, 가족들의 말도 의심하게 된다.

판사는 누구의 말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직업입니다. 진실은 하나이므로,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양쪽 모두 온전한 진실이 아닌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을 말하고, 나머지는 숨기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법관의 판단이란 당사자의 주장이 거짓말일 것이라는 의심에서 출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사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족들의 말에도 증거를 요구하게 되는 직업병에 걸리고 맙니다. 가족들은 진실을 밝히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단지 같은 편이 필요했을 뿐인데도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판사들은 자신의 판단으로 사회의 갈등이 조금이라도 봉합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고

우리는 '이 시대의 변호인'이 되어야 합니다

백종한
법학박사·조선대학교 강사

지난해 12월. 한 대학생이 학교게시판에 청년들의 자성과 사회 참여를 촉구하는 내용의 '하수상한 시절에 안녕들 하십니까'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붙였고, 이는 잠자는 영혼을 깨우듯 사회에 큰 울림이 되었다. 그리고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 국가란 국민입니다!'를 격정적으로 외친 영화 '변호인'이 상영되었는데, 이는 안녕하지 못한 수많은 관객의 가슴을 울리며 오늘의 아픈 현실과 공감하게 하였고, 1000만 관객의 신화를 만들었다.

2014년 지금의 우리는 안녕한가? 위 헌법 조항처럼 '내가 이 나라의 주권자이고 이 나라의 권력이 나로부터 나온다'라고 자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안녕하지 못한 답답한 오늘의 현실 속에서 주인이 아니라 두렵거나 무시당한다고 느끼지 않으면 다행인 세상인 듯하다. 또한 위 헌법조항을 헤아린다면 국민은 압박의 대상이 아니라 하늘과 같이 섬김을 받아야 할 것인데 과연 오늘의 현실은 어떠한가? 주인인 국민에게 닥치는 부당한 공권력이나 사회제도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2013년 우리 사회에서 이슈가 된 '갑·을 관계' 논란 역시 소수 지배자 '갑'의 불공정·불평등에 기반한 독점과 특권, 횡포와 거기에 치이면서 살 수밖에 없는 다수 피지배자 '을'의 처지가 너무나 선명하게 대비되면서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갑'과 '을'이 선명하게 구분되는 나라를 어떻게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고 할 수 있을까?

지난해 12월 고려대생 주진우 군의 '안녕들 하십니까'란 첫 대자보는 거리에서, 고교의 담벼락에서, 페이스북에서, 트위터에서, 카카오톡에서,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등에서 '안녕하지 못한' 하소연을 쏟아 놓게 하였고, 이는 사회문제에 외면하던 사람들에게 타인의 안녕도 생각하게 하는 외침이 되었으며 관심을 공유하게 하였다.

필자는 법학을 전공한 비정규교수로서 아내, 각 대학원과 대학에 재학 중인 아들들과 함께 영화 '변호인'을 보았다. 영화는 5공화국의 대표적 용공 조작 사건인 '부림' 사건을 소재로 한다. 판사를 거쳐 잘나가던 고졸 출신의 세무 전문 변호사가 시국 사건을 변호하면서 불합리한 사회 현실에 눈뜨게 되는 과정을 그린 영화다. 우리 가족은 영화를 보고난 후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보는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지만 일치된 결론은 국가의 이름으로 자행된 폭력적 공권력의 단면에 대한 성찰과 늘 깨어있어야 한다는 정의로움에 대한 자각이 있었고, 반드시 정의를 세워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주인공의 고군분투를 마음에 담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 영화는 우리가 전혀 모르는 어떤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단지 우리가 애써 외면하며 눈감고 모른 척하고 살아왔던 부끄러운 자화상을 통하여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자는 울림을 전하고 있다.

이 영화에서 필자에게 가장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대사는 돼지국밥집 주인인 김영애가 어머니로서의 힘겨운 고통 속에서 간절함으로 절규하는 '변호사님아, 변호사님아, 니 내쫌 도와도…'라는 목소리였다. 이는 안녕하지 못한 시대에 이 사회의 곳곳에서 애타게 도움을 요청하는 소외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절규처럼 다가오는 것이었다. 영화의 마지막에 판사가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부산지역 변호사 142명 중 99명의 변호인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는 장면에서 정의는 결코 외롭지 않고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을 볼 수 있어서 감동을 준다.

우리는 아직도 이 영화의 주인공과 같은 '시대의 변호인'을 갈망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시대의 변호인은 단순한 의미의 변호사만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분노와 절망의 힘든 처지의 극한 상황에 처한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과 빛을 줄 수 있는 위치의 사람과 기관으로서 대통령과 청와대, 여당과 야당,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을 포함한 국회와 지방의회, 사법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행정부, 언론, 시민단체 등의 제 사회단체 등을 망라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현실은 동서 지역격차의 확대, 빈부격차의 확대와 사회복지 사각지대, 빚으로 시작하는 대학생활과 사회생활의 악순환과 청년실업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우리 사회 전반에서 드러나는 위와 같은 제 문제와 현상에 대해, 만약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고 여긴다면 이 시대의 변호인들은 이러한 현실을 방임해서는 안 된다. 권력이 국민을 두려워해야지 국민이 권력을 두려워하는 세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정작 권력의 주인인 국민이 권력에서 소외된 상태에 대해 국민 모두가 활짝 웃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진정한 변호인'은 누가 있을까? 어디서 찾을 것인가?

社說

여수앞바다 기름유출 총력방제 나서라

여수산단의 한 정유회사 송유관에서 선박 사고로 기름이 바다로 유출돼 인근마을 앞바다까지 오염이 확산되고 있다. 걱정스러운 것은 해경과 여수시가 방제작업을 펴고 있으나 유막이 바다 곳곳에 넓게 형성돼 제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해양 기름유출은 한번 방제 시기를 놓치면 걷잡을 수 없이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31일 여수시 낙포동 낙포각 원유 2부두에서 싱가포르 국적의 유조선 W호(16만t급)가 한 석유업체의 송유관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송유관이 파손돼 기름 800여ℓ가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천만다행으로 유조선에서는 기름이 유출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유출된 기름 일부는 조류를 타고, 사고 현장에서 4~5㎞ 떨어진 여수시 삼일동 신덕마을 앞바다까지 흘러간 것으로 확인됐다. 신덕마을은 260가구 600여 명이 살고 있으며, 128㏊의 공동 어업구역에 톳과 미역 등을 양식하고 있다. 이번 사고로 20㏊가량이 기름에 오염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 전문가들에 따르면 바다가 한번 기름오염이 될 경우 피해지역이 오염이 전 깨끗한 상태로 돌아가려면 10년이 걸리고, 오염물질 잔류기간이 최고 100년은 된다고도 한다. 이는 지난 2007년 태안 앞바다 기름 유출사고와 지난 1995년 여수 시프린스호 유출사고에서 경험한 바 있다. 빈틈없는 방제대책을 세워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고 수습은 항상 최악의 상황을 전제로 이루어져야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는 사고 대처의 기본이다. 해경과 여수시는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방제에 나서야 한다. 인력은 물론, 흡착포와 오일펜스 등 방제물자도 적극 투입해야 한다.

안이하게 대처했다간 두고두고 후회할 환경재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막오른 지방선거 '유권자 혁명' 기대한다

6·4 지방선거를 120일 앞둔 4일부터 광역시·도 단체장과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여야 각 당은 예비 후보 등록과 함께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하고, 일제히 선거전에 돌입한다. 사실상 지방선거 운동의 막이 오르게 된 것이다.

예비 후보자가 되면 제한된 범위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사무소와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고, 선거사무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선거사무원도 둘 수 있다. 또한 유권자에게 직접 전화를 할 수 있으며 이메일·문자메시지 발송(5회 이내), 어깨띠·표지물 착용 등도 가능해진다.

이번 지방선거는 여야 양당 구도 속에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신당'이 급부상하면서 기존의 정치 지형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게 큰 관심사다. 특히 민주당 '텃밭'이었던 호남에서 새정치신당이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데다 박근혜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그 귀추가 주목된다.

하지만 민주당 독주시대였던 1~5대 지방선거만 하더라도 불·탈법으로 얼룩져 혹독한 후유증을 앓아야 했다. 5대 때의 경우 인구당 선거사범 건수가 전국 최고치를 나타냈고, 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당선인 가운데 65명이나 입건됐다.

따라서 민주당과 새정치신당 후보자 간에 접전이 예상되는 이번 선거는 그만큼 과열·혼탁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벌써부터 일부 지역에선 탈법이 자행되는 등 '진흙탕'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유권자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과열 분위기에 휩싸이지 않으면서 신중한 선택을 해야 한다. 정치꾼이 아니라 내가 사는 곳의 지역일꾼을 뽑는 것이 지방선거의 근본 취지이기 때문이다. 잘못 뽑아놓고 재·보궐선거를 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 몫이다. 후보자의 자질과 공약을 철저히 따져 후회 없는 선택을 하는 '유권자 혁명'을 기대한다.

無等鼓

한류수지

"지난주에 정원에서 직접 기른 배추로 부엌에서 김치를 담갔다."

지난해 2월 미국의 퍼스트레이디 미셸 오바마 여사가 트위터를 통해 자신이 직접 담근 김치를 소개해 세계적인 화제가 됐다. 미셸 여사는 김치 재료와 담그는 방법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달 9일 세리즈 샤르키샨 아르메니아 대통령이 한국의 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다. 샤르키샨 대통령은 서울에 머무는 9일 동안 건강검진을 포함해 주름 개선시술, 줄기세포 보관 등의 건강 서비스를 받고 2억 원을 냈다.

두 사례 모두 지구촌을 휩쓸고 있는 한류의 위상을 보여준다. 1990년대 후반부터 형성되기 시작한 한류가 이젠 열풍을 넘어 문화로 자리잡고 있다.

2012년 7월 발표된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은 아시아 중심이던 한류를 지구촌 전체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 지난 10여년간 폭발적으로 성장한 한류는 드라마와 K-POP을 넘어 음식·패션·의료관광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최근 98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지구촌 한류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한류팬은 928만 명으로 1년만에 258만 명이 증가했다. 한류 동호회 수도 987개로 전년에 비해 204개가 늘었다.

한류의 힘은 무역수지도 흑자로 돌려놓았다. 국제수지항목 가운데 '한류수지'로 불리는 음악, 영화, 의료관광 등 서비스의 수출입이 지난해 2억801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개인·문화·오락서비스수지는 1억6710만 달러로 2년 연속, 건강관련 여행수지는 1억1300만 달러로 3년 연속 흑자행진을 이어갔다. 여기에 게임업종의 지적재산권 수지까지 포함하면 한류수지 흑자는 9억 달러에 달한다.

더욱 고무적인 것은 문화수출이 100달러 늘어날 경우 휴대전화나 가전제품 등 한국의 상품 수출은 평균 395달러 늘어난다는 사실이다. 한류수지 개선은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요즘 가장 잘나가는 아이돌 스타이자 광주 출신 수지가 한류수지 개선에 첨병인 점도 기쁜 일이다.

/장필수 사회2팀장 bungy@kwangju.co.kr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8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鎬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경 제 부	2200-663	경영지원본부	2200-515
〈대표 FAX	222-4918〉	문화 1부	2200-661	문화사업국	2200-541
편 집 부	2200-649	문화 2부	2200-651	〈F A X	222-8005〉
정 치 부	2200-612	여론매체부	2200-621	〈F A X	222-0195〉
〈대표 FAX	222-4918〉	체 육 부	2200-697	광고마케팅국	227-9600
사 회 부	2200-616	사 진 부	2200-693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F A X	227-9500〉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